

‘4.11 19대 총선- 공천전쟁 본격화’



◆민주통합당 부천 원미읍 예비후보 여론조사… 선관위 조사 불가때

이사철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조사 요청”

민주통합당 설훈 · 한병환 예비후보 여론조사 결과

“신뢰성과 객관성 의심… 여론조사과정 조사 필요”

선거철마다 유권자 표심 호도 · 혼란 초래 ‘필요악’

최근 부천지역에 4.11 총선 예비후보들마다 았다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역언론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표하며 “내가 우세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사철 국회의원(부천 원미읍)은 20일 오전 같은 지역구에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민주통합당 설훈 예비후보와 한병환 예비후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원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의 조사를 요청했다.

설훈 · 한병환 예비후보는 지난 10일과 12일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보 적합도에서 (자신들이) 가장 우세하다’며 지역 언론사와 문자메세지로 지역구민들에게 공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사철 국회의원은 유사한 시기에 동일 지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편향 질문 및 어휘 사용 행위 ▲응답 강요나 조사자 의도에 따른 응답 유도 등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왜곡이 의심된다고 판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원미구선관위에 ▲여론조사 과정 및 자료 일체의 공정성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이사철 의원은 특히 ▲여론조사 시행 전 · 후 여론조사 기관과 각 예비후보자 간의 밀약 및 대가 수수 등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요청했으며 ▲예비후보자가

의뢰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무작위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행위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구했다. 이사철 의원은 “이번 두 건의 여론조사는 같은당의 예비후보자들이 자신들의 공천 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엉터리 여론조사로 판단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엄중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같은 거짓 여론조사 공표를 통한 공천 경쟁이나 여론몰이 등 인건이나 끌어보려는 구태 정치인들의 꼼수가 아직까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당당당하게 부천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부천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부천 원미읍 지역구에서는 이번 4.11 총선에 ▲새누리당에서는 △이사철(60) 국회의원 △최환식(54) 전 도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고 ▲민주통합당에서는 △김진국(53) 혁신파통합 부천 공동대표 △설훈(59) 전 국회의원 △송백석(47) 전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한병환(47) 전 부천시 시민운동부즈만 위원장 등 4명이 공천심사위의 ‘컷오프’ 경쟁을 통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에서는 △박영우(61) 전 한국폴리텍대학 김천캠퍼스 학장이 출마표를 던지고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부천 원미갑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들도 여론조사 결과 여론몰이= 이런 가운데 부천 원미갑 선거구에서도 5명(김기석, 김경현, 이상훈, 박성희, 조용익)의 민주통합당 예비후보가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컷오프’ 전선을 뛰어넘기 위해 자체 여론조사 등 앞세워 자신의 후보 적합도를 알리려는 유사 사례가 독버섯처럼 생겨나고 있어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예비후보 진영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놓고 실시하는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내가 후보로 적합하고 유리하다’고 주장해서 공천심사위에서 통과한다면 누군들 못하겠는가”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선거철마다 봄철 알러지(Allergy · 두드러기)처럼 푹푹 튀어나오는 여론조사의 허와 실을 그동안 선거전 과정을 지켜봐온 유권자들의 성숙한 의식이 예전, 어느덧,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4.11 총선을 앞두고 부천지역에

서 실시한 여론조사 가운데 예비후보들마다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후보 적합도와 지지율에서 타 후보에 비해 뒤지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고, 모두가 자신이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공표했다.

민주통합당 부천 원미읍에 출마할 모 예비후보측도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고 응답률이 매우 낮아 (1~5% 미만) 변별력이 없어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할 정도로 자체 여론조사는 의뢰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삼척등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선거철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호도하고 혼란케 하며 ‘필요악’처럼 여겨지는 ‘여론조사의 퍼즐 풀기’에 대해 이번 기회에 선관위의 철저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대목이다.

/강영백 기자
storm@thebuceon.com

부천시 의회사무국장에 박한권
홍보기획관에 한창희



△박한권 부천시의회 사무국장

부천시 (시장 김만수)는 2월14일자로 4급(지방서기관)으로 승진 발탁된 박한권 홍보기획관을 공석중인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했으며, 5급 전보인사로는 홍보기획관에는 한창희 원미구청 공원관리과장이, 오는 12월까지 10개월간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에 들어가는 허모 도시디자인과장 자리에는 안정

민 오정구청 세무과장이 각각 발령받았다. 5급(사무관 · 과장) 요원으로 승진 발탁된 김웅의 정책기획팀장은 원미구청 역곡1동장(직무대리)으로, 민장식 교통행정팀장은 오정구청 신흥동장(직무대리)으로 각각 발령받았다. 시는 또 2월13일자로 6급(주사) 팀장 18명을 전보 및 6명 승진을 비롯 해 7급 7명 전보 및 11명 승진, 8급 19명 전보 및 3명 승진, 6명 신규 임용, 그리고 9급 13명을 신규 임용하는 등 10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2월13일자 및 14일자 부천시 인사발령 내역 ≡8면

◆한병환 · 설훈 예비후보, 여론조사 ‘진흙탕 공방전’

한병환- “설훈 후보 선거법 위반혐의 조사 의뢰” 포문

설훈- “음해성 ‘선관위 신고’ 운운에 심히 우려” 성명서

4.11 총선에 부천 원미읍으로 출마표를 던진 민주통합당 한병환 · 설훈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둘러싸고 ‘검찰 조사 의뢰 vs 음해성’이라고 티격태격 날선 공방을 벌이며 진흙탕 싸움으로 비춰지면서 ‘새로운 정치 변화’를 여망하는 시대적 흐름을 도외시한 구태 정치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 예비후보 간 이같은 첨예한 신경전은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컷오프’ 전선을 넘어 당내 경선에 나서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부천 원미읍에는 민주통합당으로 후보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는 이들 두 후보 외에 김진국 · 송백석 후보가 있어 4명이 공심위 심사를 통해 ‘컷오프’를 통해 최소 2명이 사전에 탈락할 것으로 보여 돌발 경쟁이 치열하다.

#. 한병환 · 설훈 예비후보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 막진막후 ▶한병환 예비후보= 휴일인 지난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설훈 예비후보가 실시한 두차례의 여론조사(1월29~30일, 2월3~5일)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4항 및 5항 위반에 해당, 원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포문을 열었다.

한병환 예비후보는 “설훈 예비후보가 두차례의 여론조사를 하면서 설문 초기 두 문항에서 자신(설훈 예비후보)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물어 자신을 홍보한 후 민주당 원미를 후보들의 이름을 나열해 후보적합도를 물었다”며 “이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와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4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설훈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 공직선거법 제108조 5항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병환 예비후보측은 “민주통합당 원미를 국회의원 후보 경선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적 경선과정을 거쳐서 높은 도덕성을 가진 후보가 선출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한 설훈 예비후보를 원미구선관위에 조사를 의뢰, 더이상 민주통합당과 원미읍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부당하게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설훈 예비후보= 이에 맞서 20일(오늘) 오전 당초 긴급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대신 “ ‘한병환 예비후보의 음해성’ ‘선관위 신고’ 운운에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설훈 예비후보는 “이번 19대 총선의 핵심은 ‘깨끗한 선거’, ‘정권 교체’ 그리고 ‘정치의 변화’라며 “하지만 일련의 선거운동 과정을 돌이켜 보면, 과거 행했던 음해와 상대 후보에 대한 지나친 네거티브를 통해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같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한병환 예비후보의 문제제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가인 조원씨앤아이(www.thenucheon.com)를 통해 선관위 신고 후 진행됐

던 방식이며, 문자메시지 내용은 원미구선관위에 보내 허락을 받은 후 그대로 발송했던 내용”이라며 “선관위에 문의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을 통해 마치 불법을 자행한 후보로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다”며 한병환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소지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를 꺼집어 냈다.

그는 “(한병환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2월6일 상2,3동 호남향우회 식사대회 후 식사 자리에서는 김아무개씨에게 본인인 국회의원인 되면 ‘시장과 친하니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등 부천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마치 관련선거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지난해 5~6월경에는 부천시청 읍보즈만 사무실로 부천시체육회 모찌 등 수명을 불러 국회의원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사전 준비로 입당원서 모집을 부탁, 그중 1명이 ‘기차 등이 앞면 어떨까?’고 하자, ‘아니다라고 시치미 떼면 된다’며 조용히 작업하라고 지시했으며, 당시에 입당원서가 담긴 봉투를 받은 한분은 현재 그 봉투를 가지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또 “윤영국 시의원과 한병환 예비후보와 후보단일화 과정도 어처구니 없는 꼴수를 부리다가, 윤영국 시의원의 반발과 부천시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설훈 예비후보는 “민주통합당 국민경선은 국민에게 실망을 주기 위한 경선이 아니라, 보다 큰 정치,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병환 예비후보가 보여준 모습은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정치 신인의 자세가 아니며, 너무나 때가 많이 묻은 갑이 적지 않고, 앞으로 더 이상의 추해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매우 언짢은 감정을 표출했다.

/부천의 참언론 - 더부천
www.thenucheon.com

4.11 19대 총선 - 부천4개 선거구 누가 뛰나

예비후보 30명 등록 - 2월20일 현재 ▶ 8면

부천로보파크 ‘로봇제작교육’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교육 기간: 2011년 9월 ~ 2012년 2월

◆교육 내용: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으로 2008년부터 부천시 관내와 김포시에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 대상으로 로봇제작 교육을 통해 학생에게 다양한 과학 정보와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 각 학교별 1기수, 기수별 20명, 매주 1회 2시간씩 기수별 12주 과정 교육 진행.



◆대상 학교

부천시- (초등학교) 복사,부인,부일,부천남,덕산,부안,부흥,부천북,부천원일,부천중앙,부천중앙,심원,창영,소안초등학교 (중학교) 부천남,부천동,부천북,부흥,부천북,수사,중흥,소명여자,수주중학교. 김포시- 통진초등학교,대곶중학교.

◆운영 결과: 총 25개교 대상 로봇제작교육을 운영해 500명 학생들 대상 교육 실시.

◆향후 계획: 부천로보파크 정규교육 과정 신설 · 운영.



경기도교육청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부천산업진흥재단
Bucheon Industry Promotion Foundation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매주 월요일 휴관

*부천로보파크 홈페이지(www.robopark.org), 전화(☎070-7094-5475)

성주산 정상... 그곳은 아직 ‘금단의 땅’

산 정상에 군부대 막사... 시민 발길 허용 안해 성주산 정상, 부천시민들이 밟아볼 날은 언제?



△성주산 정상에 들어선 군부대 막사.

성주산은 소사구 소사본동·송내동 일원을 중심으로 시흥시 대야동으로 지류가 이어져 시흥시에 속한 소재산(해발 299.4m)과 함께 백두대간(白頭大幹)에 속하는 산이다. 성주산은 특히 원미구 원미동과 역곡동 일대에 걸쳐 있는 원미산(해발 167m)과 더불어 부천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며 4계절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친구같은 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성주산 정상은 1973년 7월 1일 부천시가 시로 승격한 이래 지금까지 시민들의 발길을 허용하지 않는 금단의 땅으로 남아 있다. 산 정상에 군부대 막사가 들어서 인근 9공수 부대와 더불어 중요한 관측 초소로 국방부에서 민간인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주산을 찾는 사람들은 ‘성주산 자락을 끼고 돌아서’라는 말을 한다. 성주산 정상에서 바라본 부천시 전경을 바라보는 기회가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성주산 정상을 밟아보지 못한 부천시민들은 그래서 궁금해 한다. “성주산 정상이 그토록 중요한 군사요충지인가...”라고 반문하곤 한다. 부천시 홈페이지에 불평의 소리도 남긴다. 지난 1월12일 부천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시민 박모씨는 ‘성주산의 군시설 철폐요망’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얼마전 성주산 등산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주산에서 서울신대 쪽으로 내려오면서 성무정 뒷산에 웅장스러운 건축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언덕 위에 과거에 군부대가 주둔해 있었던 시설이 웅장스

럽게 그대로 있더군요. 쓰러져 가는 건축물과 철조망으로 막힌 울타리, 근무 초소등이 너무 보기가 좋지 않은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능선위 나무숲에 가려져 있다고는 하나 얼마전 개통된 부천의 둘레길 이미지를 좋지 않게도 할 수 있겠더군요. 어느곳에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서 이곳에 글을 씁니다.” 부천시의 답변은 아직 없는 상태. “집을 지키고 보호하는 산’이란 이름을 가진 성주산(聖柱山)은 원미산(遠美山)과 더불어 부천시의 대표적인 산이자, 백두대간(白頭大幹)의 지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참고로 원미산(遠美山)은 옛날 부평부 관아(현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산동 소재)에 있던 동헌에서 아침 해돋이 때와 해질녘 노을질 때 바라보는 산세가 아름다워서 부평부 관아에 부임한 도호부사가 산 이름을 물었지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멀리서 바라본 산모습이 아름답다’는 의미로 원미산이라고 지었다는 유래가 있다. 성주산과 맞닿아 있는 시흥시 소재산 정상(해발 299.4m)은 사람들의 발길이 자유롭게 이어지고 있는데 반해, 성주산 정상은 사람의 발길을 허용하지 않는 금단의 땅으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한가지 장점이 있다면



△부천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폭 떨어진 가운데 파란 하늘이 펼쳐진 맑은 날씨를 보인 18일 오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현대아파트에서 바라본 소사구 소사본동 일원 성주산이 손에 잡힐 듯 한눈에 들어온다. 성주산 정상(해발 217m)에 일반 시민의 발길을 닿지 못하게 하는 군부대 막사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성주산 자락 아래 건물은 서울신학대학교 건물이다.

주변에 녹지와 계곡 등 주변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다는 것이다. 까닭에 성주산 정상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 제한적으로나마 시민과 학생들에게 제한적으로 개방해 성주산 정상에서 부천시내 전경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본다. 물론 한걸음 더 나가 아예 성주산 정상이 활짝 개방돼 부천시민들이 원미산 정상을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일이 국방부 등과 접촉해 ‘성주산 정상 개방’을 위한 노력을 기대해 본다. 성주산(聖柱山)은 도시화 바람이 불어닥치기 전인 1960년대까지만 해도 벌막 쪽에서 소가 앉아 있는 산세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고 해서

主山·해발 712m), 전남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성주산(聖主山·해발 251m), 경북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에 있는 성주산(聖柱山·해발 219m) 등 같은 이름을 가진 성주산이 4곳이 있다. 하지만 부천시의 성주산(聖柱山)은 한자로는 유일한 지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물며 이렇진대 부천시 홈페이지는 부천의 산과 하천과 관련된 자세한 소개가 아예 빠져 있거나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이면 시 승격 40주년, 부천시 탄생 100년이라고 하지만 부천시 스스로 지역 정체성을 찾고 홍보하는 일이야말로 중요하지 않겠는가.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이재진 前도의원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근무 사회통합지원단 대외협력팀장 발탁... 20일부터 출근



이재진(45) 전 경기도의원이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송석규·장관급)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통합지원단’의 대외협력팀장으로 발탁됐다. 이재진 전 도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8일 <The부천>(더부천)과의 통화에서 “16일 사회통합위원회 대외협력팀장 임명에 따른 사령장을 받았으며, 20일부터 공식 근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 도의원은 앞서 사령장을 받은 날(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거리 사진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www.facebook.com/leejaejin04·바로 가기 클릭)을 통해 “이런 아침 광화문, 세상은 분주히 그리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누구를 위해 별도로 기다려 주지도 않고 따로 났도 때도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모두에게 공평한 시간이기에 분주히 움직이는 것이며, 2012.2.16도 그렇게 시작됐고, 저에게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기도 하다. 모두들 기분좋은 하루였으면 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 전 도의원이 ‘저에게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라는 알듯 모를듯 뉘앙스를 풍기는 글을 올리자 지인들의 반응도 즉각 나왔다. 댓글을 통해 “무슨 좋은 일이 있는거냐”, “좋은 일 있는 것같아 보인다”,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하다” 등의 반응과 더

불어 심지어는 “이번에 (새누리당으로 비공개) 공천 신청을 했나?”라는 질문을 던지는 등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기도 했다. 때마침 전날(15일)이 새누리당 19대 총선 후보자 신청 마감일이어서, 부천에서 활동해야 할 그가 이른 서을 광화문 거리의 사진과 함께 ‘저에게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에 혹시 비공개 공천 신청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게 했던 것이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이재진 전 도의원이 근무하게 될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www.hamonykorea.go.kr)는 사회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같은해 12월23일 공식 출범했으며, 임기 1년의 장관급으로 초대 위원장은 서울시장과 국무총리 등 요직을 두로 거친 고건(72) 전 총리가 맡았으며, 지난해 12

월 제2기 위원장에는 송선구(72) 가천의과대학 총장이 맡아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주요 업무는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 △사회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소통 활성화 △계층 등 경제적 지위 문제에 따른 갈등 해소 △이념 등 가치 문제에 따른 갈등 해소 △지역 간의 갈등 해소 △세대, 성(性), 인종, 다문화 간의 갈등 해소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 활성화 △사회통합에 대한 조사·연구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사회통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 및 실무적인 사무 수행을 위해 설치된 ‘사회통합지원단’은 단장을 비롯해, 전문위원실(전문위원 3인), 기획총괄팀, 계층분과팀, 이념분과팀, 지역분과팀, 세대분과팀, 대외협력팀, 홍보팀을 두고 있다. 이재진 전 도의원은 이번에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의 사회통합단 대외협력팀장을 맡았으며, 20일부터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번지(신문로1가 116번지) S-타워 7층에 있는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재진 전 경기도의원(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사회통합지원단 대외협력팀장)= 1967년생으로 부천남초, 부천중, 부천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육군 학사정교(중위)로 전역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남부천 청년회의소(JC) 회장, 민주평통 자문위원, 부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위원, 소사구 노인복지회관 운영위원, 부천벤처클러스터협의회 위원, 부천생활협동조합 이사, 부천지역정보센터 이사, 부천시 노사정실무협의회 위원장, 부천리틀야구단 단장 등을 역임했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사지구당 청년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에 입문해서는 김문수 국회의원의 권(경기자사) 정책 보좌관, 제4대 부천시의원(2002년 7월~2006년 6월)을 지내고 2006년 7월 제7대 경기도의원(부천 제5선거구)으로 당선돼 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다가 2010년 6.2 지방선거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부천시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그해 3월16일 도의원을 사퇴하고 후보 경선에 참여했으며, 다가오는 4.11 19대 총선 출마 여부에도 지역정가의 적지않은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theBucheon

더부천신문사

우 420-101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88-48번지 2층
홈페이지 www.thebucheon.com
광고신청·문의 ☎032-329-2313 FAX 032-329-2314

전화안내 ☎032-329-2313
등록번호 경기 다 01096
E-mai l: storm@thebucheon.com

발행인 許玉粉	편집인 姜泳百	인쇄인 이승철	편집국장 姜泳百
---------	---------	---------	----------

무가 발행 부천시 전지역 배포
2008년 9월23일 경기 다 01096

〈격주간 발행〉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天子峰 산기슭에서 자라는 장수樂 도라지 농원 방문을 환영하며 희망 하시는 분은 안내해드립니다.

찬바람이 불면 “목에는 도라지다”

장수樂 도라지

왜 장수樂 도라지인가?

▶ 예로부터 목에는 따라올 것이 없다고 알려진 것이 도라지다.

▶ 도라지가 좋은 이유는 차가운 바람으로 얼어붙은 한겨울에도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지키는 도라지의 힘 때문이다.

▶ 오래 묵은 도라지는 산삼에 버금가는 사포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서울본사 | 주문안내 : 02)8484-114

경남사무소 | 주문안내 : 055)5522-114

서울 약령시장 전시장 : 02)9227-114

DoM 장수약도라지 ▼

목이 불편하세요? 그럼 도라지진액을 권해드립니다.

☑ 목을 많이 쓰시는 분(교사, 종교인, 방송인, 상담원 등)

☑ 기관지가 좋지 않으신 분

☑ 호흡이 불편하거나 기력이 없으신 분

☑ 먼지로 인하여 목이 자주 아프신 분

☑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

☑ 오래 동안 감기로 기침을 자주하시는 분

☑ 목에 가래가 달라 붙어 있어 기침이 잦으신 분

도의원 보궐선거 부천 2곳... 여야 후보군 윤곽

총선 시너지 효과 여부... ‘공천 최대 변수’

4.11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부천 원미갑 선거구의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의 부천시 제1선거구(원미1동·춘의동·도당동·역곡1동·역곡2동)와 부천 소사구 선거구의 경기도의원 부천시 제6선거구(소사본1동·소사본2동·소사본3동·역곡3동·범박동·괴안동)에 출마를 준비중인 여야 예비후보군의 윤곽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제1선거구- 새누리당 조안호 보좌관 ‘낙점’ 민주당 통합당 3파전·통합진보당 여성 후보

◆경기도의원 부천시 제1선거구= 새누리당에서는 임해규(52) 의원이 ‘삼고초려’ 하다가 공을 들인 이음재(57) 전 도의원이 불출마 함에 따라 ‘새로운 인물’로 ▲조안호(47) 임해규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내세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나라당 부천 원미갑 당원협의회는 이음재 전 도의원이 불출마 통보함에 따라 다음날인 지난 12일 10개동 협의회장과 10개 지능위원회장과 부위원장단이 참석(이음재 전 도의원도 참석)한 가운데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출마를 희망한 이영우(53)·장명진(60) 전 시의원과 조안호 보좌관 등 3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만장일치로 조 보좌관을 추대함에 따라 지난 14일 마감된 새누리당 경기도당에 단독으로 후보자 신청을 함에 따라 사실상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다.

조안호 보좌관은 1965년생으로 충남 서산(태안) 출신으로,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대학원을 수료했으며 주간 내일신문 기자로 잠시 활동했고, 대학교에 다닐 때 원미구 삼곡2동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통합당도 출마 예비후보군이 드러났다. ▲염종현(52) 경기도 교육자치협의회 정책위원회(전 민주당 경기도당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17일 예비후보로 등록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고, 이어 지난 3일 ▲장순우(53) 전 경기도 방송통신대학교 총학생회장(전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외회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지난 13일에는 ▲김영협(61) 전 부천시 호남향우회 연합회 사무총장(전 18대 총선 원미갑 김경협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3파전 구도가 형성돼 공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민주당 통합당 염종현·장순우·김영협 예비후보(왼쪽부터).

여기에 당초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김삼중(66) 3선 부천시의원(2010년 6.2 지방선거 출마)도 19대 총선 후보 경선구도에 따라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예측 가능한 익숙한 인물들 간의 당내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통합당의 경우, 19대 총선에 부천 원미갑에 나설 후보 공천을 누가 받느냐가 이들 3명의 예비후보 공천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부천 원미갑에서는 김경협·김기석·이상훈·박상희·조용익의 예비후보(가나다순)가 19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민주당 통합당으로 공천을 신청, 이달 중 공천심사위의 ‘컷오프’를 통해 당내 경선에 나설 후보로 2명 또는 3명이 될 것인지와 후보 공천을 받을 최종 순서가 누가 나설 것인지에 최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유신호(40·여) 부천여성회 회장(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이 지난 1일 예비후보로 등록해 표밭갈이에 나섰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줄곧 시민운동을 해 왔다.

통합진보당은 부천 원미갑에 19대 총선 출마후보로 백현중(41) 현 사단법인 나눔과 섬김 이사장과 함께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도 단독으로 신청해 표밭갈이에 나서 민주당 통합당과의 야권 단일후보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유신호 예비후보.

제6선거구- 새누리당 강일원·황원희 민주당 통합당도 김종석·김재빈 ‘2파전’

◆경기도의원 부천시 제6선거구= 새누리당에서는 ▲강일원(53)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전 부천시의원, 현 부천대학 부동산정보학과 전임교수)과 ▲황원희(66) 전 도의원(2010년 6.2 지방선거 출마, 전 부천시의회 4대 후반기 의장)이 새누리당 경기도당에 후보자 신청을 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따라 경선 여부가 판가름나게 됐다.

두사람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도 도의원 출마를 위해 당내 대의원 경선에서 맞붙어 부천시의원을 사퇴하고 도전했던 강일원 전 시의원이 2표차 패한 바 있어 ‘경선 리턴매치’를 통해 후보 공천을 할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9대 총선에 부천 소사구에 단독 공천을 신청해 3선 도전에 나서는 차명진(53) 국회의원이 누구를 파트너쉽으로 삼아야 표밭갈이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느냐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19대 총선 선거전에 누구를 내세워야 민주당 통합당 총선 후보의 득표력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가 후보 공천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통합당 김종석(46) 김상희 국회의원의 보좌관(왼쪽)과 2010년 6.2 지방선거에 경선에 이어 재도전에 나선 김재빈(61) 국제로타리 3690지구 새부천로타리클럽 회장.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진보당에서도 19대 총선 득표율을 위해 이혜원(47) 총선 예비후보와 함께 뭉드 의원의 후보를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 통합당은 경기도의원 부천시 제1선거구와 제6선거구의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 공천은 4.11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관계로 부천 원미갑과 부천 소사구의 총선 득표력에 있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울 수밖에 없어 ‘지역정서’와 총선 후보와의 연관성 등 물밑 득실(得失)을 세밀하게 따져서 후보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민주당 부천원미갑·원미을... ‘컷오프’ 흑막

원미갑 예비후보 5명... 긴장감 최고조

원미을 예비후보 4명... 2명 압축 예상

민주당 통합당의 공천 심사기준이 확정돼 지역구에서 국민 경선에 나설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기로 함에 따라 5명이 공천을 신청, 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부천 원미갑의 예비후보 진영에서는 ‘컷오프’를 누가 통과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천 원미갑(가나다순)에는 ▲김경협(50) 전 노무현 대통령 사회조정비서관 ▲김기석(66) 전 국회의원 ▲박성희(59) 소상공인 자영업컨설팅 ▲이상훈(47) 부천교육연대 대표 ▲조용익(46) 법무법인 인 정동 대표변호사 등이 공천 신청을 했다.

이와 반면에 4명의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해 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부천 원미을은 당초부터 2명으로 압축해 국민 경선을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각 후보진영에서는 이에 대비했던 만큼 부천 원미갑 보다는 긴장감이 덜하지만 ‘누가 컷오프를 통과할 것인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부천 원미을(가나다순)에는 ▲김진국(53) 현 혁신과통합 부천 공동대표 ▲설훈(59) 전 15.16대 국회의원 ▲송백석(47) 전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한병환(47) 전 부천시 시민을부조민 위원장 등이 공천 신청을 했다.

한편, 부천 소사구에는 가나다순으로 ▲강백수(55) 현 세무법인 인경 대표세무사 ▲김명원(57) 현 사단법인 환경대안운동협회 이사장 ▲김상희(58) 현 국회의원(비례대표) 등 3명이 공천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국민 경선 실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천 오정구에는 ▲원혜영(61) 현 국회의원이 4선 도전에 나서기 위해 공천 신청을 단독으로 함에 따라 경선 절차없이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확실시 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맨’을 자처해온 ▲서영석(54) 전 경기도의회 6대 전반기 부의장은 무소속출마를 위해 공천 신청을 포기해 표합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총선 후보 선출 선거인단 모집

20~29일까지... 만19세이상 누구나 가능 정당법상 공무원 등은 참여할 수 없어

민주당 통합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을 오는 20일 오전 11시부터 29일 오후 9시까지 실시한다. 선거인단 접수는 콜센터(☎1688-2000·일반전화, 휴대전화 모두 가능)와 인터넷(www.2012win.kr·24시간 접수), 스마트폰 모바일페이지(m.2012win.kr)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민등록상 1993년 4월11일 이전의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정당법상 공무원 등 정당활동이 불가능한 분들은 접수할 수 없다.

선거인단 등록은 20~29일까지 접수받되 모집기간 내에 경선이 확정, 실시되는 지역은 경선일 5일 전까지만 접수받는다. 예를 들어 경선일(휴대폰 ARS 투표 시작일)이 3월22일로 결정되는 지역은 5일전인 2월26일까지만 선거인단을 접수한다.

선거인단 접수가 투표방법 선택을 콜센터, 홈페이지 모두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투표방법은 추후 변경할 수 없는 만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모바일투표(휴대폰 ARS 투표)의 경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유할 경우

에만 신청 가능하다. 현장투표를 선택할 경우 접수 절차는 폴센터의 경우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 후 신청자의 인적사항(전화번호, 주소를 알려주면 접수가 완료되고, 인터넷의 경우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본인 인증으로 본인 확인한 후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현장투표를 할 때 신분증 확인하는 만큼, 투표할 때 가져올 신분증과 일치하는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모바일투표는 스마트폰과 일반휴대전화도 가능하며, 모바일투표는 음성ARS방식으로 음성 안내를 듣고 숫자를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나이가 많은 어르신도 쉽게 할 수 있다. 모바일투표를 선택할 경우 접수 절차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어야 하며, 폴센터를 통해 접수할 경우 휴대전화에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위한 암호숫자 5자리를 전화 통화중 에 바로 보내면 이 암호숫자를 확인해 폴센터 상담원에 알려주고, 인적사항을 불러주면 접수가 완료된다. 인터넷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휴대전화 본인 인증으로 본인 확인한 후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면 접수

가 완료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현장투표를 신청한 경우는 신청한 주민등록 소재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바로 투표를 가능하며, 모바일투표를 신청한 경우는 현장투표와 달리 먼 대형 확인이 불가능한 관계로 별도의 주소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주소가 정확한 사람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인단 등록 확인은 인터넷(http://2012win.kr)의 선거인단 등록 확인 메뉴를 눌러 확인할 수 있고,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집전화 등으로 콜센터에 전화해 선거인단을 신청하거나,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인단이 되려면 본인이 직접 선거인단 신청을 해야 하며, 대리 접수는 불가하다. 모바일 투표(휴대폰 ARS 투표)는 이틀에 걸쳐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실시되는데, 투표 첫날 3회, 둘째날 2회 등 총 5회가 발송된다. 5번의 투표 기회에 모두 참여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된다.

휴대폰ARS투표는 먼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해 본인 확인을 한 후 투표 절차에 들어간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를 잘못 입력하더라도 2회의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7자리 번호를 천천히 꼼꼼하게 눌러주면 된다.

◆새누리당, 공천 심사기준 확정... 본격공천심사

총선과 대선 승리 기여·당선 가능성·정책 입안 능력

엄격한 도덕성과 참신성·당 헌신도와 사회 기여도 등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25%인 33명 공천 배제’



새누리당은 4.11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모를 지난 15일 마감한데 이어, 공천심사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착수했다.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정홍원)는 16일 주요 공천 심사 기준으로 ▲총선 및 대선 승리에 기여할 인사 ▲지역주민에게 신뢰를 받으며 당선 가능성을 갖춘 인사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책 입안 능력이 있는 인사 ▲엄격한 도덕성과 참신성을 갖춘 인사 ▲당 헌신도 및 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 세부 심사기준으로는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현 시대의 국민 눈높이 검증 기준을 적용해 민생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희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

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성범죄·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경선 부정행위 등 4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병역문제가 야기된 자 ▲파벌적 범죄·부정비리 범죄는 범죄 시기와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확정했다.

또한 공천의 적극 고려 기준도 마련, ▲여성 정치 참여 확대(여성의 가산점을 20%와 10%로 나눠 현역 광역기초의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현역의 광역기초의원들이 가산점을 매개로 해서 총선에 출마할 경우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상당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공계 정치 참여 확대 ▲소수자 존중 및 다양한 계층 대표에 대한 배려로, 장애인·다문화가정·북한 이탈 주민 등에 최대 20%까지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두개 이상의 가산점에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배점이 큰 가산점 한개만 부여하고, 국가·사회·당에 대한 헌신 및 기여 등에 대해 최대 10%까지 가산점을 주기로 했으며, 대국민 소통과 관련해서는 SNS와 활동, 대중매체의 토론, 인터뷰 등 미디어 노출, 사회봉사 활동 및 공익단체의 기부금 납부 실적 등에 대해서도 최대 10%까지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현역 의원의 평가여

론(조사) 기준과 관련해서 평가항목은 교체 여부 50%, 경쟁력 50%로, 후보의 경쟁력을 25%, 타당 후보와의 경쟁력을 25%로 정했다.

타당 후보와의 경쟁력은 야권 후보 및 무소속 후보로 가상 설정해 조사하고, 새누리당 후보와의 경쟁력은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가장 경쟁력 높은 후보 1인과 현역 의원을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적용은 전체 144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 불출마 10명을 제외한 현 지역구 의원인 134명을 기준으로 해서 25%를 적용해 평가결과 하위 25%인 33.5명에 해당하는 의원은 공천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경쟁력 조사에서 현역 의원이 당내 유력 후보에게 뒤질 경우, 현역 의원은 공천을 배제하고, 평가시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 현역 의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홍준표 의원과 홍사덕 의원은 제외된다.

새누리당은 또 후보자 공천 심사시 중점 검증사항과 관련해 공천 신청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 이행 여부를 중점 심사하고, 자선 행사 과정에 국민 정서와 괴리된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정치인 및 선출직 사퇴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기로 했으며, 특히 19대 총선 출마를 위해 선출직 공직을 사퇴한 후보의 정당성을 따로 검증하기로 했다.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사퇴 등으로 인해 4.11 재·보선 실시 지역이 증가함으로 인해 선거비용 중대에 따른 책임 표명이 필요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검증을 하기로 했다.

▲후보자간 경선 방식= 새누리당은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위한 경선 방식과 관련해서는 신청자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면접과 여론조사, 검증자료 등을 종합해 경선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선거인단은 1천500명으로 규모로,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당원 20%, 일반국민 80%, 그리고 당원은 책임당원 50%, 일반당원 50%로 경선과 관련된 선거인단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공천심사 기준 확정... 정체성 강화

당적 변경·경선 불복 등 원천 배제 지역구 경선 후보 2명 압축 ‘+1명’



민주당 통합당이 4.11 총선에 출마할 후보 선출을 위해 복수의 후보가 신청한 지역구 별로 국민 경선에 나설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예비후보들에 대한 ‘컷오프’의 범위를 좁힌 것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회의를 열고 정치자금, 뇌물, 횡령, 화이트칼라 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보와 민주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잦은 당적 변경을 했거나, 공천 및 경선 불복 등 중대한 해당(害黨)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후보는 공천 심사서서 원천 배제하기로 하는 등 공천 심사기준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확정한 공천 심사 기준의 특징은 당의 가치와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정체성 강화’와 ‘정치 신인 배려’, ‘현역 의원에 대한 다면 평가’로 요약된다.

이는 여론조사에서 인지도가 낮은 후보에게 오히려 가산점을 주고,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배제해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주어 공천 혁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천 심사 배점은 정체성 20점, 기여도 10점, 의정·사회활동 10점, 도덕성 10점, 후보적합도·경쟁력 30점, 면접 20점으로 각각 정했다. 2008년 18대 총선과 비교해 정체성에 대한 배점을 10점 높이고, 후보적합도·경쟁력에 대한 배점을 10점 하향 조정했다.

또 심사 과정에서 여성과 장애인 후보에는 15%, 40세 미만 청년 후보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4년 이상 근무한 당직자와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도 10%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반면에 윤리위원회 징계 중 제명, 당원자격정지 등을 받은 후보는 10%, 경고를 받은 후보는 5% 각각 감점기로 했다.

특히 국민 경선을 실시할 경우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위와 3위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공신위 판단으로 3명이 경선에 나설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만들었다.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정당 사상 처음으로 의원끼리 서로를 평가하는 ‘다면 평가’를 도입해 일반 공천신청자와 별도로 추가 평가 과정을 거쳐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역의원 심사 기준은 의정활동 평가 능력 30점, 여론조사 40점, 다면평가 30점으로 이뤄진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여성후보 지역구 15% 이상 공천률은 공신위가 당규에 따라 15%를 추천토록 노력하고 최고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했다. 민주당 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13일 오후 열린 당무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 유능한 인재를 국민과 함께 공천하는 것, 특히 가치 중심, 정체성, 그리고 후보의 경쟁력이 어우러진 국민 중심의 공천을 공천심사 위원들이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통합당은 2월 말까지 선거구별 후보군을 2명 정도로 압축하고, 3월 초 선거구별 경선 후보와 방식을 확정해 3월 10일까지는 공천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지사, 터키·독일·영국 방문

경기도119, 4만곳 생활안전서비스 제공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무료 보급
전기·가스·보일러 점검·정비 등



경기도가 재난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도내 구축구석구석으로 119 안전 지원의 손길을 뻗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내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 3만5천곳과 소방 안전에 취약한 연면

적 400㎡ 미만의 영세사업장 5천곳 등 총 4만곳을 대상으로 전기·가스 및 보일러 설비 무료 안전점검·정비사업과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 순회 건강돌봄봉사 등 다양한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저소득 재난취약가구의 주거환경과 영세사업자의 작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따른 조치로, 현재 각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119 서민생활 안전지원단 사업'을 '재난취약계층 맞춤형 통합지원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34개 소방서의 119생활안전단과 의용소방대원 등 각종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전기, 가스, 보일러 등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들의 신청을 받아 이들이 직접 재난취약대상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기존 전기·가스 등 시설정비 위주에서 소방시설 설치, 건강 체크 등 생활봉사 분야까지 안전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매주 토요일 'KTX 타고 떠나는 DMZ 투어'

경기관광공사, 25일부터 '당일코스 여행'작년 2천653명... 매년 2배 가량 늘어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와 경기관광공사(사장 황준기)는 오는 25일부터 경기도 대표 철도여행상품인 'KTX 타고 떠나는 DMZ 투어'에 '이하' 'KTX-DMZ 투어'를 운영하기 위해 본격적인 상품 판매에 들어갔다.

'KTX-DMZ 투어'는 2009년 8월 경기도-코레일 업무협정체결 기념으로 개발된 상품으로, 지난 3년간 경기관광공사, 파주시, 코레일관광개발이 협력해 함께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작년 한해에만 총 2천653명의 지방 관광객이 DMZ를 다녀갔다.

DMZ(비무장지대) 일대 관광은 그동안 복잡한 출입 절차와 최북단 위치라는 거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방에서 관광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KTX-DMZ 투어'라는 당일 코스 기차여행이 출시되면서 일반인들이 쉽게 비무장지대를 관광할 수 있게 됐다. 출시 후 매년 180% 이상 이용객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KTX-DMZ 투어'는 실제로 이용객들의 참가 만족도와 입소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가자들은 광주와 부산에서 아침 7시30분경

KTX를 타고 출발해 용산역 또는 서울역에 도착 후 연계버스를 이용해 임진각으로 이동한 뒤, 간단한 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출입 절차를 마치고 DMZ로 들어가게 된다.

'통일촌 마을'에서 장단콩 된장찌개 백반이 점심으로 제공되며, 이어 DMZ 안보 체험관광의 핵심 코스인 '제3땅굴-도라전망대-도라산역', 특히 '제3땅굴'을 지하 73m 깊이까지 직접 도보로 다녀오게 된다.

또한 서부전선 최북단 관측소(OP)인 '도라전망대'(해발 156m)에 오르면, 개성공단과 북한 선전마을(기정동)을 육안이나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으며, 날씨가 맑은 날이면 송악산과 개성시내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다.

'도라산역'은 경의선 남측 최북단 역으로, 2002년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미대통령이 함께 철도 침묵에 서명하는 행사를 갖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6.25때 신의주로 향하던 도중 폭탄을 맞아 그 자리에 멈춰서 있던 증기기관차 화통을 옮겨와 전시한 '장단역 증기기관차'도 인기가 높다.

'KTX-DMZ 투어' 상품 가격은 광주 출발일 경우 성인 7만9천원, 아동 6만2천900원으로 KTX 왕복 운임비, 연계버스비, 중식, DMZ입장료, 여행자보험 등 여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참가자가 추가 부담없이 떠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특히, '놀토'에만 운영하던 것을 주5일 수업제를 맞아 '매주 토요일' 출발로 확대, 참가자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금년 중 호남선은 목표까지 출발역을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경기관광공사 황준기 사장은 "세계 유일의 DMZ를 KTX로 하루만에 다녀갈 수 있는 관광상품은 경기도에만 있다"며 "올해는 주5일 수업제로 늘어날 주말 가족여행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경기도만의 특화상품을 보다 다양하게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KTX 타고 떠나는 DMZ 투어'는 현재 코레일 여행센터(광주역 ☎062-605-2149, 익산역 ☎063-855-7715, 부산역 ☎051-440-2513, 신경주역 ☎054-743-4884, 동대구역 ☎063-940-2223), 코레일관광개발(대표전화 1544-7755, 익산지사 ☎063-852-7789, 부산지사 ☎051-466-8122)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인터넷(www.korailtravel.com)으로 예약할 수 있다.

/부천의 참언론 - 더부천
www.thenucheon.com

“세입자도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허용해야”

경기도, “세입자 참여권 보장” 정부에 건의

경기도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국토해양부 주최로 열린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단지

의 세입자 거주비율은 42%(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에 이르지만 현재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관리비는 주택소유자와 똑같이 내지만 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는 세입자를 제외시킨 현행 규정이 부당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견이다.

경기도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세

입자 참여 비율은 각 아파트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전달했다”며 “재산 처분, 리모델링 등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의결권은 제한할 문제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의 내용에 대해 소유자의 권익보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용적률, 소형주택 비율, 기반시설 부담률, 임대주택 비율 등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반대로 조사된 구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촉진계획변경을 통해 뉴타운사업 지구를 해제할 방침이다.

도는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 보수나 개량사업을 할 경우 공공에서 기반 시설을 지원하도록 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의 새로운 정비방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뉴타운 주민 의견 66개 구역 중 45개 구역 반대 17일 뉴타운 주민의견 투표 결과 발표 도, “추진 원하는 곳 최대 지원 해제 원하는 곳 신속 해제” 밝혀

경기도내 뉴타운 사업 추진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결과, 전체 조사대상 10개시 66개 구역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45개 구역의 주민 25%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8일 이같은 주민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된 주민 의견을 토대로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은 최대한 지원하고, 해제를 원하는 곳은 신속하게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17일까지 진행됐으며, 투표

결과 고양시 원당3구역과 부천시 소사본83구역 등 21개 구역의 반대표가 25% 미만으로 조사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고양 능 7구역을 비롯한 45개 구역의 반대표가 25%이상을 기록해 사업 추진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로써 경기도 뉴타운사업은 10개시 17개 지구 165개 구역에서 9개시 15개 지구 120개 구역으로 축소,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전문

성김 주한미국대사, 김문수 경기지사 예방



△지난 9일 오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 방문한 성김 주한 미국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성김 주한미국대사가 부임 인사차 지난 9일 오전 경기도청을 방문, 김문수 경기지사와 대화를 나눴다.

김 지사는 “한국대사 부임을 환영

한다”며 인사를 건네고 “스티븐스 대사 때와 마찬가지로 성김 대사님 역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좋아하고, 한미 관계가 더욱 좋아질 뿐 아니라

한미가 하나된 일심동체 기반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다. 훌륭한 한미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해주신 오바마 대통령과 미의회가 탁월한 식견을 갖고 대사님을 선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김 대사는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주한 미대사로 근무하게 된 건 큰 영광이며, 지사님은 물론 국민들의 환대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성김 대사는 “저 역시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장관께서 이런 역할을 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제가 서울 이외 지역 방문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사님은 국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훌륭한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직접 만나 뵙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사님을 공무원 상대로 강연을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못했다. 다음엔 강연에 초청하고 싶다”고 하자, 성김 대사도 “저 역시 기회가 된다면 그러길 원한다. 제가 누구 대상으로 강연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지금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것이다. 특히 동두천 의정부는 관심이 아주 많은 곳”이라며

“지역 개발 차원에서 동두천 의정부뿐 아니라 한국의 전체적 방어 차원에서도 미군이 평택으로 옮기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안전 문제에서) 조금 걱정도 하고 있다. 북부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김 대사는 “제가 예전 대사관에서 한미동맹을 위해 기지 재배치를 다루는 직접적인 일도 했었다. 예를 들면 연합 토지관리계획이나 용산 재배치 등에 직접 관련했었다. 당시 가장 염두에 뒀던 게 전쟁 역지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며 “주한미군 기지를 통제합하고 기지로 허브로 만드는 게 방어능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면 사령관과 함께 머리를 맞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한미 FTA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다”고 하자 성김 대사는 “FTA 관련해선 양국에 이익이 되는 좋은 협정으로 알고 있다. 특히 이런 점에서 한미 당사자들 높게 평가한다.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며 “양측 모두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시민과 정직한 소통-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

www.bucheonin.com / www.bucheon.me

‘인터넷 더부천’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깔끔하고 절제된 고품격 온라인 뉴스서비스
더 새롭게 더 정확하고 더 세련되고
더 빠르고 더 강해졌습니다!

The 성장하고 The 사랑받는 The 부천이 되겠습니다.

부천의 참언론- 더부천 www.thebucheon.com

기사 제보·광고문의 : ☎(032)329-2313 / FAX (032)329-2314
e-메일 : storm@thebucheon.com / 010web@naver.com

더 높이 날고 더 멀리 보는
- 더부천 -



‘부천시민대학’ 3월 개강… 1학기 참가자 모집

오는 24일까지… 올해부터 ‘학기제’ 운영
3개 과정별로 30명씩 총 90명 모집

15주 45시간 3학점 과정으로 진행
부천시는 시민교육과정의 최고 과정인 ‘부천시민대학’ 2012년 1학기 개강을 앞두고 3개 과정에 대한 학습자를 오는 2월24일까지 모집한다.
‘부천시민대학’은 시민지도자 양성과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시민의 성장과 성장을 돕기 위한 심화교육과정으로 지난해 9월 2개 과정으로 문을 열었으며, 올해부터는 1학기 과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학기제’ 운영에 들어간다.
부천시민대학 1학기 과정은 사회적 변화와 흐름을 읽어 관점을 정립해 적극 대처하는 시민의 책무성 강화와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인문학을 중심으로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제1과정은 ‘마음의 발견, 삶의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3월6일부터 6월1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되며, 강의는 김찬

호 교수(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 외래교수, 사회학 박사)가 맡는다. 제2과정은 ‘조선 후기 지성사 산책: 연암과 그의 시대’라는 주제로 3월9일부터 6월1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강의는 박한용 교수(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국어국문학 박사)교수가 맡는다.
또 새롭게 추가된 제3과정은 ‘문화와 예술로 읽는 한국사’라는 주제로 3월8일부터 6월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강의는 박한용 교수(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과장 교수, 한국사 박사과정 수료)가 맡는다.
3개 과정의 수강생은 각 과정당 30명을 모집하고 모집기간 중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습자의 지역활동 경력과 교육 참여 내용, 참여 동기 및 의지 등을 확인해 선발하게 된다.
이는 사전 학습과 과제 수행 등 보다 심도있는

학습 참여도를 요구하는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해 무엇보다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지닌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를 우선 선발하기 위한 것이다.
‘부천시민대학’에 참여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learning.bucheon.go.kr)의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작성한 후 방문 및 부천시평생학습센터(☎032-625-2853), 이메일(wjy7707@korea.kr)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교재비 및 교육과정 운영비는 각자 부담하면 된다. 학기제 운영에 따라 1학기 15주 45시간 3학점 과정으로 운영되고, 추후 학점은행제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기마다 입학식과 졸업식을 실시한다.
시 교육청소녀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참여 신청 시작 2일 만에 모든 교육과정이 마감될 정도로 부천시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높았던 만큼 이번 교육과정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시민과 정직한 소통 -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

부천시, 시승격 40주년 슬로건 공모

3월15일까지… 시민 누구나 참여
최우수 100만원 · 우수 50만원 시상

부천시는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2013년 부천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슬로건’을 공모한다.
슬로건의 내용은 부천의 역동성과 새로운 부천시대를 맞이하는 의미와 미래상이 담기고,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응모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1인당 2개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응모는 시청 홈페이지

(www.bucheon.go.kr)에 접속해 ‘시정소식→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작성한 후 3월15일까지 부천시청 8층 시승격 40주년 준비사업단(☎625-2301~3)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420-736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또는 이메일(kyt2102@korea.kr), 팩스(☎032-625-2307)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
시는 외부전문가, 대학교수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최우수 1편, 우수 1편, 장려 2편을 선정해 각각 100만원, 50만원, 30만원의 시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심사 발표는 3~4월중 수상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시승격 40주년 준비사업단은 “슬로건을 통해 부천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천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이 고취되길 기대한다”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032)625-2303.

/부천의 참언론 - 더부천
www.thenucheon.com

SSM 영업 제한 · 의무 휴업일 지정 관련

부천시 조례개정 추진… 의견 수렴나서

부천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과 관련,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부천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시 지역경제과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조례 개정을 위해 대형마트, 소상공인,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조례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히,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 개정인 만큼,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해 지역 소상공인, 일반 시민, 유통상생발전협의회 등과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부천지역에는 현재 인근 도시에 비해 대형마트 6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16곳 등 비교적 많은 점포가 영업중에 있는 점을 감안해 대형마트와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마련은 물론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032)625-2702

부천시, 제2단계 공공근로 참가자 모집

20~24일까지 4개 분야에 총 700명 모집
근로시간 주 30시간… 일급 2만7천480원

부천시는 2012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를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4월4일부터 6월19일까지 3개월간으로, 정보화 · 생산성 · 공공서비스 · 환경정화사업 등 4개 분야에서 총 700명을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청년 실업 대책 추진으로 만18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층에게 사업비의 30%를 우선 배정한다.
신청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본인 및 배우자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구직 등록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고등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 △방송통신 대학생 및 야간대학 재학생 또는 대학 휴학생 △0.1ha 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이면 된다.
단, 실업급여 수급권자 ·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세대별 달리는 부부 포함)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경제적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 공무원 가족 · 직전 단계 사업 당초 및

중도 포기자(다른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포함) ·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초과 보유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근무시간은 주 30시간(1일 6시간)으로, 일급은 2만7천480원이 지급되며, 만 65세 이상자는 1일 3시간 근무로 일급 1만3천750원이 지급된다. 공통적으로는 1일 3천원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간식비 등의 부대경비가 지급된다. 기타 문의= 일자리정책과 ☎(032)625-8433.

반듯한 부천의
참언론이 되겠습니다!
더부천 The Bucheon
광고문의 : 032-329-2313

소사구,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참가자 모집

오는 24일까지… 중 · 고생 100명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봉사활동
부천시 소사구는 경로당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봉사활동 특화프로그램인 ‘청소년 자원봉사학교’가 호평받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 참여할 중 · 고생 100여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는 경로당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이 불법 광고물

정비와 도로변 청소 등 도시환경 정비를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1.3세대 간 소통’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7개 경로당에서 운영된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로당에는 월14만원의 사회봉사 활동비가 지급되고, 청소년들에게는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인정하

는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청소년 자원봉사학교’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 · 고생은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pcvolunteer.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주민생활지원과(☎032-625-6372)로 하면 된다. 소사구는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오는 29일 경로당 회장단과 참가 신청을 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소득 장애인에 휠체어 수리비 지원

2월15일부터 수동 휠체어 10만원
전동 휠체어 · 스쿠터 20만원까지

부천시는 2월15일부터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의 고장 또는 훼손시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부천시에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국민기초수급자 및 가구당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이다.

시는 이들 장애인이 사용하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수리 및 타이어 · 모터 · 컨트롤러 등 소모품 교체시 비용을 지원한다.
수동휠체어는 연 10만원까지, 전동휠체어(스쿠터)는 연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동주민센터에 수리를 신청한 후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는 휠체어 수

리 의뢰서를 갖고 시가 지정한 보장구 수리업체인 ‘케어114’와 ‘휠로피아’ 등 2개업체를 방문해 수리받으면 된다.
시는 특히,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수리업체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장애인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수리업체를 직접 방문해 수리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사회복지과(☎032-625-2889) 또는 각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시, 2012년분 경기도내 1위

경기도, 1년분 2천223억원 징수
부천 203억원 · 수원 179억원 순

자동차세 1년분을 1월에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의 2012년 1년분 선납액은 203억원으로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2년도 자동차세 1년분 선납액은 2011년보다 4.5% 증가한 78만9

천대에 2천223억원이 징수됐다. 2010년 대비 2011년의 선납액 증가율은 30.5%였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1년분 자동차세 선납시 적용되는 할인율 10%는 보통 4%인 시증정기예금 실질금리의 2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라며 “2011년 이후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 · 군별로는 부천시(203억원), 수원시(179억원), 용인시(145억원), 성남시(114억원) 순으로 차량 등록대수가 많고 도시화가 높은 지역의 자동차세 선납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이 폐차 · 매매하는 경우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변동일 이후 선납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 · 군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자동차세는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의 1월 선납시 혜택은 10%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천시민과 정직한 소통 -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

부천시, 결혼이민자 한글교육 전담기관 운영

원미구 2곳, 소사구와 오정구 각 1곳
언어적 소통 해소 등 사회 적응 교육

부천시가 결혼이민자들의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15일 시 가족여성과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에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4천700여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혼이민자들은 입국 초기에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가족과의 갈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통한 사회 적응 향상을 위해 ‘한국어 교육 전담기관’을

원미구에 2곳, 소사구에 1곳, 오정구에 1곳을 지정해 운영기로 했다.
원미구는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032-320-6391)와 가톨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02-2164-4398), 소사구는 부천시 삼곡복지회관(☎032-665-6061), 오정구는 부천시 노동복지회관(☎032-679-2900)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 4곳의 ‘한국어 교육 전담기관’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교육 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기초, 초급, 중급, 고급반 과정을 운영하고, 보다 편안한

수업 환경을 위해 한국어교실 참여자와 동반하는 자녀들을 위해 놀이방 운영 및 아이 돌보미도 파견한다.
또 은행, 관공서, 병원 이용하기, 시장보기, 지역탐방 등 생활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한국어 교육 전담기관’에서는 오는 3월 개강을 앞두고 한국어교육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시 가족여성과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수준이 향상돼 국내 조기 정착과 다문화가족구성원간의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인으로서 자존감을 높여 행복한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정구, 구정업무 ‘사전 알림제’ 운영

직원용 우수시책 공유 웹사이트 개설

오정구(구청장 배효원)는 주민들이 구정 업무를 손쉽게 접하는 ‘구정업무 사전 알림제’를 운영하는 한편, 직원들에게는 전국의 우수 시책을 안내하는 ‘블링블링 우수시책 공유’ 코너를 운영하기로 했다.
오정구에 따르면 ‘구정업무 사전 알림제’는 오는 24일 구청 홈페이지(ojeong.bucheon.go.kr)에 개설, 구정 연간 주요업무계획, 주간 및 월간 업무보고, 간부회의 자료 등 주요 시책 등을 공개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받는 소통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대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새로운 시책 발굴이 필요하지만 시간과 비용에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전국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증된 우수 시책을 수집해 전직원이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블링블링 우수시책 공유’ 코너를 개설해 16일부터 제공해 지역여건에 맞게 접목시켜 나가도록 했다.

구는 발굴된 우수 시책들은 수정과 보완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시책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원미구, QR코드로 다양한 정보 신속 제공

원미구(구청장 이해양)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발맞춰 각종 홍보물과 시설물에 QR코드를 활용해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QR코드는 상품의 각종 정보를 담고 있는 바코드로 표시된 그림상자로, 스마트폰을 대면 모바일 웹홈페이지와 연결돼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고비용을 들여서 제작하는 지면 홍보물 대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행사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미구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지방세 세목 안내와 납부방법, 각종 인허가 사항,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시민정보화교육 안내 등 시민들에게 알려져 할 다양한 정보를 QR코드와 트위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구는 특히 지역축제 통합 모바일웹 홈페이지를 구축해 한 개의 QR코드로 다양한 축제의 개최 시기, 장소, 축제 유래 등을 제공하는 한편, 각종 사업과 공공시설물에 맞는 QR코드를 제작해 청사와 게시판, 현수막, 각종 홍보물 등에 부착해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손쉽게 빠르게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하도록 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 사 제 보
☎ (032)329-2313
Fax (032)329-2314
e-메일: storm@thebucheon.com
www.thebucheon.com

부천시, 텃밭 농사체험 230세대 모집

20~24일까지… 세대당 13.2㎡ 약 4평
참가비 6만원… 시청 홈페이지서 접수

부천시는 가족과 함께 텃밭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도시농업 체험장(시민농장)’ 회원을 20일부터 24일까지 230세대를 모집한다.
부천 관내 거주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명의로 1가구 1계좌만 신청 가능하며 분양면적은 1세대(구좌) 당 13.2㎡로 실경작 면적은 약 4평이다.
도시농업체험장 장소는 원미구 춘의동 343-343-1번지 일대로 역곡 북부역에서 수주로 방향으로 2km 지점 도로변 좌측에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입구에 있는 텃밭이다.
참가비는 세대당 6만원으로 텃밭 임차료, 경운, 구획 분할, 비료, 모종, 종자 구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시는 김장채소 종묘 구입, 비닐 관수시설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참가신청은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중앙이벤트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인터넷 추첨 후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는 녹색농정과 자연학습팀(☎032-625-280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 www.bucheon.go.kr)

“학교폭력, 이제 그만!”… 7대 실천 정책 발표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 피해학생 보호 최우선
학교폭력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
학교·가정·사회가 협력해 인성교육 실천



△김형식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김형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련 관계장관 회의 열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해결 의지에 따라 국무총리·교과부 장관, 관련 전문가·학생·교사와 30여회 긴급 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 근절자문위원회’ 3회 개최 등 각계 각층의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마련했다.

정부는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 기존의 학교폭력 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성교육이 형식화된 교육 현실에 대해 반성하고, 7대 실천정책을 수립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직접 대책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교장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 정지 조치하고 별도의 시설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피해 학생 보호와 함께 가해 학생 조사가 보다 엄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특례)에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장은 또 ‘학교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정기 개최(원활한 운영 위해 일과 후 또는 주말에 개최), 학내 폭력 실태 점검 및 교육 방안을 논의토록 하는 한편, 경미한 폭력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전담기구

가 소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된 경우, 학교장 및 관련 교원에 대해 4대 비위(금품 수수, 성적 조작, 성폭력 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징계하기로 했다.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및 생활지도 여건 조성=금년부터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 1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해야하며, 문자 등 다양한 방법 활용하는 등 담임교사의 역할이 강화되는 한편, 학급의 학생수가 과다한 경우 생활지도 업무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담임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복수담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수담임제는 올해는 중학교에 우선 적용하고, 2013년에는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하고, 학생수 기준도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기로 했다.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의 학교폭력(가입중독 등 포함)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별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 대책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경찰청이 각각 운영하던 학교폭력 신고전화(경찰청 ‘☎117’로 통합하고, 교과부와 여가부의 협조를 받아 경찰청이 24시간 운영하는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를 광역 단위로 확대·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개소에서 17개소로 늘어난다. ▲학교폭력 은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그간 쉬쉬하며 감춰지던 학교폭력을 숨김없이 밝혀내고,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장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초4~고3 학생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피해학생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고 신속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학생은 경찰 동행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경찰이 가해학생을 감독하게 된다.

피해학생 또는 피해 학생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상담학교 진학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일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때 피해학생은 정상적으로 배정한 후, 가해학생은 추후 별도 배정기로 했다.

피해학생들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고 치료비 보상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가해학생-피해학생 학부모간 분쟁을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선(先)치료지원-후(後)처리시스템’도 마련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학생 측의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한 후 가해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 엄정 대응=앞으로 학생들의 인성을 기초로 포착이 어려운 일진회의 존재 여부를 주기적으로 탐색·대응하는 ‘일진 경보제’를 도입하고, 일진회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해 발본색원 할 방침이다.

■[직접 대책3] 포괄활동 등 예방 교육 확대=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포괄활동을 지원기로 했다. 2012년중 시범기간을 거쳐 2013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상담, 중재, 조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학교폭력의 출발점이 되는 학생간 갈등을 대화, 토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수업(교과교육)을 통해 학습한 것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연계해 포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 반영하고, 학교교육과정 및 학교계획에 의한 학생 포괄활동, 자치법정 등 자율활동 관련 내용은 학생부 특기사항 및 에듀팟에 기록한다

■[직접 대책4] 학부모 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정확하게 이해하

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는 인식하에, 그간 교육청·학교로 찾아오는 학부모에 한정하던 학부모 교육의 대상을 ‘모든 학부모’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학부모 교육의 공간을 직장, 민간단체 등 교육청·학교 밖으로 확장하는 한편, 시간적 제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 포털(www.parents.go.kr)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근본 대책5]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학교폭력대책이 수립·시행됐음에도 학교폭력이 더욱 심각하게 양산되고 이유는,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의 실천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임을 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인성교육 보다 는 즉각 학교폭력 현상을 억제하는 단기 대책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이 대책만 반복되고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전반에 걸쳐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별 발달단계에 따라 학교에서 해야 할 인성교육의 핵심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생활교육-교과교육-체험활동 등 학교생활 전 영역에 걸쳐 인성교육을 실천하도록 했다. 또한, 인성교육이 단지 교육의 수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 기록부의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인성을 핵심적인 평가요소로 반영해 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인성교육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인성 관련 학생부 기재 강화 및 입학전형에 반영=학생 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 작성시 학생의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을 핵심 인성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입학사정관전형,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반영한다. 입학사정관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 항목을 신설하여 자기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인성분야를 신설해 평가의 핵심요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근본 대책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그동안의 학교폭력 대책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학교폭력 해결을 학교에만 집중한 탓이 크다는 인식하에, 가정과 사회가 협력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키우고,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할 수 있도록 다 양한 프로그램과 인식개선을 위한

월요 시론 - ‘연민으로 보던 이주노동자’

“지금까지 기성세대는 ‘돈’에만 매달려 살아 젊은이들이 꿈 꾸지 못하는 현실 안타까워 뒤늦게 꿈과 희망의 시스템 ‘협동조합’ 만나”

한홍석

안골보리법집 대표
pipis@dreamwiz.com
개인홈페이지
www.pipis.co.kr

“이제 아빠는 그 이주노동자야”라고 말하는 우리 아이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자칫하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도 이주노동자 신세. 최근에 지인들과 만나 저녁밥을 먹었다. 돌아가며 이야기를 하다가 내 차례가 되어 말을 꺼내는데, 민망하게도 눈물이 쏟아졌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꿈을 꾸지 못한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목이 메었다. 나야 10년 뒤, 20년 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니 지금 구태

여 꿈을 꾸지 않아도 된다. 우리 젊은 시절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꿈꿀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5년 뒤, 10년 뒤를 알 수 없어 불안해 한다. 동석한 분이 자기가 기성세대를 탓하며 살았는데, 어느새 이런 세상을 물려주는 기성세대가 됐다고 했다. 그 말이 또 가슴을 후벼팠다. 미안했다. 우리 후손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 그래서 눈물이 나왔다. 언젠가 알벗 김기대 님이 삼성 패악과 재벌 감싸는 정부를 비판하며, 젊은이 꿈을 빼앗은 죄가 가장 크다고 지적하는 글을 읽을 때도 컴퓨터 앞에서 혼자 울고 또 울었다. 지금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자’가 되어 이 지독한 현실에서 자녀가 조금이나마 자유로울 수 있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모두 진실을 외면하고 ‘돈’에만 매달려 살았다. 지금까지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다. 내가 요즘 뒤늦게 협동조합을 만났다. 힘없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상생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꿈꿀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나 기쁘다. 희망이 있으면 지금 어려움도, 패악도, 무능도 이겨낼 힘이 생긴다. 협동조합이 꿈이고, 희망이다.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해 ‘밤상머리교육 범국민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가족사랑의 날’인 수요일과 주말을 활용해 가족이 함께 식사와 대화를 나누며 기본예절교육, 부모-자녀와의 상호이해 시간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 등이 밤상머리교육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근본 대책7]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인터넷과 게임 등을 통해 폭력적 유행영상을 많이 접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있음에도, 그간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는 경제적·산업적 관점을 중시하고 교육적 시각에서 심의·규제 및 유해성을 자율 자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영상매체(폭력영화, 인터넷, 게임 등)의 학교폭력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영향력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53.7%(‘매우 영향 있음’+‘영향 있음’)에 달했다.

게임·인터넷의 가상현실 속 잔혹성이 학생들의 폭력성을 부추기지 않고, 게임·인터넷 중독으로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예방교육 및 치유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부모명의 도움방지를 위해 아이핀 사용 확대 등 청소년에

대한 게임제공 제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는 쿨링 오프제(Cooling off) 도입을 추진하고(10분 후 1회에 한해 재접속을 가능하게 하고, 게임 시작 후 1시간 경과하면 주기적으로 주의경고문을 나타내게 하는 방법 병행), 일정시간이 지나면 게임의 진행수준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청소년의 PC방 이용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법령 위반 업주의 법적규정을 강화하고, 경

찰청과 합동단속을 강력하게 추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상의 7대 실천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사회와 가정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기존의 교과부 산하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개편했다.

또한, 시·군·구 단위 ‘학교폭력 지역대책협의회’를 신설해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방검찰청 등이 공동으로 지역단위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천의 참언론 - 더부천
www.thenucheon.com

부천경찰, 부천교육지원청과 학교폭력 공동 대처 관내 3개 경찰서-교육청 공조체계 구축키로

부천소사경찰서(서장 조항진)와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은재)은 최근 양기관 과장급 이상 간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은재 교육장은 1학기에 20~2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두차례 실시하고 경찰서장과 교육장 명의의 교육 이수증을 수여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항진 서장(총경)은 관내 원미

·소사·오정 3개 경찰서장과 교육장 및 담당자가 참석하는 연석 회의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해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이번 기회를 ‘터닝 포인트(전환점)’로 삼아 경찰과 교육계가 합심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부천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천 관내 3개 경찰서와 부천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및 대응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논술, 1주일이면 된다!

논술 준비,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요?

논술 시험은 몇몇 기준을 제시하여 그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지, 백일장에서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즉, 고3 수험생이 공교육에서 제대로 배운 뒤, 논술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겨 쓰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글솜씨를 타고나지 않아도 기준에 맞추어 익히면 해결할 수 있지요.

- <머리말>에서

정말 1주일이면 논술을 끝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논술 지침서와는 달리 글쓰기 단계를 매우 상세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쓰기에 전혀 자신 없는 중고등학생은 물론 학부모, 입사 시험 준비생, 글쓰기 지도교사에 이르기까지 이 책에서 제시한 방식대로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글쓰기에 자신감이 붙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범 답안 1권을 포함, 총4권 1세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 책 3권을 각각 이틀에 한 권씩 떼어 나간다면 6일만 해도 논술에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논술 핵심판(전4권)
제1권 논술 문장과 개요 짜기 | 제2권 단락 쓰기와 요약하기 | 제3권 글쓰기 실천과 평가하기 | 제4권 모범 답안
한홍석 지음 | 총 648쪽 | 25,000원

주제로 익히고 유형으로 다지는 실전 논술의 길잡이

핵심 주제, 교과서 개념,
관련 자료, 예상 논제로
이어지는 시스템 학습!

통합논술 교과서

- 1 실과 철학
- 2 사회와 문화
- 3 경제와 과학

전홍식 · 김수연 · 김창석 공저
각 권 18,000원

실제 논술 시험의
모든 유형과
해결 방안이 한 권에!

25가지 문제 유형으로 보는
유형별 논술 교과서

전홍식 · 김수연 · 김창석 공저
22,000원

부천시,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허위발급 수사 의뢰

재미교포 유모씨, 회사 재직 여직원 동행
美체류 부인 인감증명서 허위 발급... 왜?
서울 소재 모저축은행서 150억 불법 대출
이해관계인 뒤늦게 진정... 경찰 수사 착수

부천시 원미구 상동주민센터에서 2년 3개월 전에 인감증명서가 허위 발급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부천시가 자체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천시 상동주민센터와 부천원미경찰서, 진정을 제기한 이해관계인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 서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재미교포로 알려진 유모씨가 지난 2009년 10월 26일 자신의 회사에 재직하던 여직원 김씨(김사 직책, 현재 퇴사 부천시 원미동 거주)와 함께 상동 주민센터를 방문, 유씨의 부인 김모씨(미국 거주 재외국민)의 재외국민증을 제시하고 김씨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가 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허위 발급 당시 상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은 유씨와 동행한 여직원 김씨를 부인인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유씨의 부인이 미국에 체류 하면서 자신의 인감증명서에 대해 남편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위임장으로도 발급받지 못하도록 조치해 둔데다, 2009년 10월26일 인감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은 당시 유씨의 부

인인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동주민센터에서는 그 연유가 어찌됐든간에 유씨와 동행한 여직원 김씨에게 발급해준 인감증명서는 허위로 발급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같은 인감증명서 허위 발급 사실은 유씨가 부인 명의로 허위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2009년 11월6일 서울 소재 M저축은행 S지점에서 15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M저축은행 S지점서 150억원을 대출해줄 당시 유씨의 부인이 자서(自書)를 한 것처럼 한 뒤 대출받았으나 그 당시 유씨의 부인은 국내에 있지 않고 미국에 체류중이었다는 것이다. 유씨의 이같은 인감증명서 허위발급과 15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사실은 국내 대기업의 계열사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소재 물류창고 부지인 9천400평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땅을 매입했다가 중도금을 내지 못하는 바람에 자격이 상실된 이해관계인이 올해 1월초에 경기도 감사관실에 상동주민센터에서

사화 하려는 것을 무마하려고 했던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이해관계인은 전해 왔다. 실제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취재를 했던 모 지역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한 기사가 보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지 부천시의원이 유씨가 인감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것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어떤 이유로 기사화 하려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나섰는지 등에 대한 배경에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등 유씨의 인감증명서 허위 발급에 따른 미심쩍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유씨의 인감증명서 허위발급 사실을 경기도 감사관실에 진정서를 접수한 이해관계인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공문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재미교포인 유씨가 부인과 이같은 인감증명서 허위발급 사실을 함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 허위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로 불법 대출을 받아 물류창고 부지를 매입해 물류창고를 짓고 분양하는 일련 과정 등으로 인한 또다른 피해를 막고, 공공기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진정서를 넣게 됐다”고 말했다.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김관수 시의회 의장, 박사모 썼다

단국대 대학원서 행정학 박사학위
독학으로 ‘만학도의 꿈’ 실현 화제



김관수(56) 부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16일 오전 10시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의장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까지 받아 ‘늦깎이 만학도의 꿈’을 실현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14살 때부터 가구공장에서 목공일을 배우며 생활하

면서 목공기계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아픔과 결핵과 위염과도 싸워야 하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만 했지만 주경야독으로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쳤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해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방통대 부천학생회장을 맡아 부천시역 방통대 학생들을 위한 학습관을 설치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시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부천시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조례를 주도적으로 제정하기도 했다. 동갑내기 아내 박경수 씨와 2남3녀를 두고 있으며, 가족 모두가 배움이 넘쳐나고 있다. 첫째 성진(동국대 경제학과 4학년), 둘째 슬아(일본 유학후 부천대 건축과 졸업예정), 셋째 빛나리(공무원 시험 준비중), 넷째 슬기(부천여고 3학년), 다섯째 상운(까치울중 2학년) 등 자녀 5명이 중·고·대학교에 모두 다니고 있다. /부천의 참언론 – 더부천 www.thenucheon.com

■ The부천 / 포토 에세이

반갑다!... ‘추억의 국화빵’

요즘은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겨울 길거리 먹거리’
홈플러스 상동점 부근서 모처럼 만난 반가움이란...



△국화빵틀에 묶은 밀가루 반죽을 붓고 팔 반죽을 조금



△노릇노릇 익어가는 국화빵.

◆2012년도 부천시 노인 일자리사업

69개 사업에 2월24일까지 참여자 모집

관내 9개 수행기관서 방문 접수받아
복지형·공익형·교육형·시장형
인력 파견형 등 다양한 사업 펼쳐

부천시는 어르신들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역점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어르신들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부천 관내 9개 수행기관에서 복지형, 공익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의 사업으로 나뉘 총 69개의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참여 자격은 만 65세이상(일부 60세 가능)으로 주민등록상 부천시에 거주하면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와 정부 관할 부처에서 추진중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제한된다. 참가 신청시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사진 1매를 지참해 9개 수행기관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참여자별 기관 1개 사업 이상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중복 지원 확인시 모든 기관의 참여 자격이 박탈된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7개월간 월 36시간에서 42시간 동안 근무하고 월 2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9개 수행기관별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미구 취업지원센터(☎032-613-1666) = △복지형: 경로당도우미(경로당 내 거동 불편 노인 수발), 실버요양보호사(거동 불편 요보호노인 요양서비스 제공) △교육형: 실버강사(레크레이션, 컴퓨터교육, 경로당 회계장부 관리법 교육 등의 학습지도 강사 파견) △인력 파견형: 실버지킴이(경비 및 미화원 취업 알선) 등 4개 사업. ◆소사구 취업지원센터(☎032-351-1918) = △복지형: 경로당 도우미(경로당 내 거동 불편 노인 수발) △교육형: 숲해설 지원사업(부천식물원내 어린이와 일반인 대상 숲해설) △공익형: 교통안전 지킴이(등하교길 안전과 노인 이출입이 많은 곳 교통사고 예방사업), 실버 급식도우미(초등학교 내 아동 급식지원 도우미) △인력파견형: 실버경비대(경비교육 이수증 취득 후 취업 알선) 등 5개 사업. ◆오정구 취업지원센터(☎032-684-1508) = △복지형: 경로당도우미(경로당 내 거동 불편 노인 수발), △교육형: 한글교실(경로당에 파견돼 한글과 숫자교육) △공익형: 교통지킴이(초등학교 부근 교통지도 및 아동 범죄 예방) △인력파견형: 실버지킴이(경비 및 미화원 취업 알선) 등 4개 사업. ◆부천시니어클럽(☎032-668-4107) = △공익형: VVA 6070(불법 부채물, 전단지 제거 등 거리환경 개선), 교육형: 숲생태 해설사업(숲생태 해설 및 친환경 교육), 문화해설사업(관내

박물관 내 문화 해설 및 안내), 1~3세대 통합교육프로그램(전통예절 및 전통놀이 교육 강사, 징검다리(장애청소년 치료프로그램 교육 및 지원) △복지형: 요보호노인 돌봄사업(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르신 돌봄), 보육도우미사업(여성노인 소외계층 및 지역아동 돌봄) △공익형: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초등학교 급식 시 배식 및 정리 지원) △시장형: 유니-원 기척(유니폼 판매), 해답은 제과(과자 제조 및 판매), 베이비시터(맞벌이부부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제공), 해마루 참두부(두부 제조 및 판매), 행복담은 수레(재활용품), 은빛다솜일터(공동 작업장), 행복한 밥상(도시락사업), 인력파견형: 다솜수(♂)(실버도우미 파견) 등 16개 사업. ◆경기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032-683-1389) = △복지형: 노인학대 예방사업(지역사회내 노인학대 관련 캠페인 등 교육). ◆부천실버인력뱅크(☎032-668-6070) = △교육형: 노노사회참여지도사업(노(老)-노(老) 상담), 어르신 모니터링사업(노인일자리사업 모니터링) △공익형: 지하철 안전지킴이(지하철 안내도우미), 고객지원단(경기도사업으로 일자리사업 점점) △인력파견형: ICAN(취업 연결) 등 5개 사업. ◆부천시 원미노인복지관(☎032-667-0261) = △공익형: 은빛 밥상(초등학교 급식 배식), 은빛 깔금이(공공기관의 청소업무 지원), 은빛 나무사랑(공공기관의 화단 관리) △교육형: 교육강사(한글, 영어 등 노인교육강사), 동화구연(1~3세대 동화구연 강사), 한문교실(1~3세대 한문교육 강사), 방문학습(거동불편 노인가정 방문 한글 교육 제공), 실버 체조(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조 지도), 실버스포터즈

(휴대폰 소유 어르신대상 휴대전화 활용법 교육), 생명사랑교육단(노인 자살 예방 및 위기노인 지원사업), 노후 설계사(은퇴노인 대상 노인정책 등 안내) △복지형: 은빛 건강(경로당 노인대상 스포츠 마사지 지원), 은빛 케어(도시락 배달 및 말벗 서비스 지원), 은빛 보금자리(주거 환경 수리 및 개선), 은빛 문예(지역주민 대상 가훈 써 드리기 등 문예활동사업), 은빛 스머블스(초등교 저학년 대상 등하교길 안내), 은빛 나무사랑(거리 화단 정비 및 나무 가꾸 등 환경개선사업) 등 17개 사업. 부천시 소사노인복지관(☎032-347-9534) = △교육형: 드림티쳐(1~3세대 교육 강사- 서예, 한문, 예절, 외국어 등), 생명사랑교육단(노인 자살 예방 및 위기노인 지원사업) △복지형: 꽃사랑(요보호 대상자 및 경로당 파견 발바사지), 아이사랑(어르신의 보육시설 파견, 아동 정서 함양), 드림헬퍼(치매 및 거동불편 어르신 돌봄) △인력파견형: 드림인력(취업 연결) 등 6개 사업. ◆부천시 오정노인복지관(☎032-683-9290) = △교육형: 한글선생님(1~3세대 교육 강사), 실버아카데미(노후생활 설계 상담 및 교육), 생명사랑교육단(노인 자살 수습을 예방 교육 활동) △복지형: 실버홈케어(거동 불편 노인가정 방문 외출 및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 실버카운슬링(동년배 노인 상담가 활동), 장애아동 돌봄지원사업(장애아동의 일상생활서비스 지원), 노인학대지킴이(지역사회내 노인학대 관련 캠페인 등 교육) △공익형: 도서관 관리지원사업(도서관 서적 정리 및 관리), 녹색환경지원사업(재활용품 유통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초등학교 급식 배식), ?시장형: 늬해랑 만두(만두가게 운영) 등 11개 사업. /부천의 참언론 – 더부천 www.thenucheon.com

지금은 아스라한 추억이 됐지만, 요즘도 길거리 노점에서 흔히 맛볼 수 있는 ‘붕어빵’과 함께 추운 겨울에 호주머니가 가벼운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길거리 먹거리 가운데 하나가 ‘국화빵’입니다. 얼었던 대동강 물도 녹기 시작하고,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우수(雨水)이자 2월의 세번째 휴일인 19일 오후 동장군의 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고마운 지인의 큰맘 결혼식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부천시 원미구 상2동 홈플러스 상동점 부근 노점에서 국화빵 틀에 부은 하얀 밀가루 반죽이 노릇노릇 익히면 금세 맛있는 ‘국화빵’이 탄생합니다. 그 옛날 길거리에서 ‘국화빵’을 파는 수레는 만나면 잠시나마 추위를 녹이면서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종이 봉지에 가득 담아 주며 먹던 ‘국화빵’의 단맛이 기억이 새록새록 돌아 났기 때문입니다. 다섯개에 천원하는 ‘국화빵’을 사서 따뜻한 온기가 도는 종이 봉다리(*종이 봉투의 사투리)에서 꺼내 먹으면 그 맛은 오래 전에 먹어본 ‘국화빵’의 오래전에 먹었던 맛 그대로였습니다. ‘국화빵’을 만드는 과정을 아주 간단합니다. 빵틀에 기름솔로 기름을 바른 다음 주전자에 담은 묽은 밀가루 반죽을 붓고 팔 반죽을 조금씩 떼어 넣고 익힌 뒤 한번 뒤집어서 앞뒤로 노릇노릇 익히면 금세 맛있는 ‘국화빵’이 탄생합니다.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국화빵, 붕어빵, 호떡 등 빵을 먹던 그 시절의 겨울 풍경과 추억을 잠시나마 떠올려 볼 수 있는 시간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우수(雨水)인 19일 휴일 오후부터 동장군의 기세도 한풀 꺾여 ‘국화빵’의 단맛과 온기가 오래도록 맴돕니다. 아, 한가지를 빠뜨릴 뻔 했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국화빵에도 국화가 없습니다(*). /강영백 편집국장 storm@thebucheon.com



25년 노하우!

100% 수제 맞춤 양복!

부천성모병원(구 성가병원) 사거리 위치

을지라사 ☎ 032-346-1040

K MEDIA

Communication

K Media Communication

영상·음향

CCTV 설치 & 렌탈

행사용 영상

음향장비 대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경기미디어통신

☎032-614-3342

디자인이

소리납니다

독

카디로그 제작 · 신문지광고 · 건설분야광고 · 전단지제작 · C.I.P · POP

종합광고회사

주) 지멘커뮤니케이션

02) 516-4505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17 104

풍계가든

황토진흙구이, 옷타, 닭도리탕, 닭백숙, 오리백숙, 영양탕, 오리술불고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산66번지

T.032) 681-2211 ~ 2

공증인가법무법인

오아시스

대표변호사 조영상

소송 ☎032-325-3115

공증 ☎032-321-6611

A legal information center

lawyercho.co.kr

www.leejaek.co.kr

내집처럼 편안한 세무상담!

이재옥 세무회계사무소

부천시 원미구 중3동 1062번지 뉴월드프라자 4층

T.032) 328-5300



◆19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부천 30명 '출사표'

원미갑 11명 · 원미을 7명 · 소사구 6명 · 오정구 6명

2월20일 현재 30명... 총선 출마자는 '절반 이하'
부천 4개 선거구에 최소 9명~ 11명 출마 예상

4월11일 실시되는 19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에 선거구에 · 출사표를 던진 여야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2월20일 현재 부천 4개 선거구에는 30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이들 예비후보자 가운데 정당 소속은 16명, 무소속은 4명이며, 선거구별로는 ▲부천 원미갑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새누리당 3명, 민주통합당 5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2

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부천 원미을은 7명으로 새누리당 2명, 민주통합당 4명, 통합진보당 1명이며, ▲부천 소사구는 6명으로 새누리당 1명, 민주통합당 3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이고 ▲부천 오정구는 6명으로 새누리당 3명, 민주통합당 1명, 국민행복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은 19대 총선 후보자 등록일 전(前)인 3월21일

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접수받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후보자 공천 신청을 마감한 관계로 앞으로도 예비후보자 추가 등록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천 심사 탈락자의 탈당 및 타당 입당 또는 무소속 출마 변수는 남아 있지만 부천지역의 경우 그러한 돌발 출마 변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예비후보자 가운데 실제로 4.11 총선에 부천 4개 선거구에서 출마할 후보는 공천 심사 탈락 및 당내 경선을 통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각 1명씩 총 8명이 출마하게 되며, 통합민주당의 예비후보 2명과 무소속 출마가 확실시 되는 후보 1

명을 포함하면 최소 12명의 후보가 본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원미갑 3명, 원미을 3명, 소사구 3명, 오정구 3명 등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킬 경우에는 최소 9명의 후보가 부천 4개 선거구에 출마하게 된다. 원미갑 2명, 원미을 2명, 소사구 2명, 오정구 3명 등이다.

결국 부천 4개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30명 가운데 본선거전에 뛰어들 후보는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서영석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 오정구 풍향계

16년간 몸담은 민주당 탈당 “서글프다”

‘당선후 민당 복당’ 슬로건... 표심 공략
4선 도전 원혜영 의원 ‘대세몰이’ 차질 예상

4.11 총선에서 부천 오정구 출마를 위해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4선에 도전하는 원혜영 국회의원과 당내 경선은 필패(必敗)로 보고 11일 접수를 마감한 후보자 신청을 하지 않은 서영석(54) 전 경기도의원이 14일 오후 민주통합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서영석 예비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8일 ‘공정 경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데 이어, 어제(13일)는 무소속 출마의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1995년 민주당으로 제2대 부천시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 제5대와 제6대 경기도의원(6대 전반기 부의장)을 지내며 16년간 단 한번도 당적을 변경하지 않고 ‘민주당’을 지켜온 서영석 예비후보가 4.11 총선을 앞두고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것은 이번 총선까지 건너뛴 경우 정치적 공백기가 너무 길고, 오정구를 위한 큰 봉사를 하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영석 예비후보는 16년간 몸담아온 민주통합당을 탈당한 것에 대해 14일 오후 『The부천』과의 통화에서 “(정치 현실이) 서글프다”며 “오직 한 길만 걸어오며 더 나은 길, 더 봉사할 길을 찾았는데...”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분명히 복당한다. 4.11 총선에서 필승(必勝)하겠다”면서 “민주통합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만큼 ‘당선후 민주당 복당’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뛰어 ‘정치적으로 큰 인물’(원혜영 의원을 지칭)에 맞서 ‘바닥을 기는 땅벌레’(자신을 지칭)가 결코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것을 4월11일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서영석 예비후보의 이같은 ‘쫄쫄’ 듯한 자신감은 오정구 지역에는 오랜 기간 바닥표를 다져오면서 일정부분 확실한 지지층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 부천 4개 선거구의 민주통합당 후보 공천에 따른 역학관계 및 지역 정서 등도 고려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영석 예비후보의 민주통합당 탈당에 이은 무소속 출마로 인해 4선에 도전하는 원혜영 의원으로선 본선거전에서 새누리당 후보와의 대결구도에서 이른바 ‘집토끼’(지지층) 결집에 틈새가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산토끼’(무당층)를 끌어들이려 확실한 ‘대세 몰이’를 기대했던 선거 전략에 다소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 ‘본선거전 풍향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의 부천 오

정구 후보 공천에 누가 될 것인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명의 후보(안병도, 홍건표, 오정섭) 가운데 당내 경선에 따른 내용(內訌·집안 싸움)으로 인해 공천을 받은 후보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부천 오정구의 4.11 총선 선거전을 좀더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낙천 후보들이 무소속 후보로의 연대가 이뤄질 경우는 좀더 복잡한 선거전 구도가 형성돼 우선은 여야 후보진영에서는 가장 확실한 ‘집토끼’ 결집에 나서면서 선거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최대 변수는 막판까지 요동칠 ‘지역정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4급 <순진> △의회사무국장 박한권 ◆5급 <전보> △홍보기획관 한창희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지방행정연구원 교육 파견(2월14일~12월14일) 하모, <순진> △원미구 김용민(역곡1동장) △오정구 민장식(신촌동장).

◆6급 <전보> △시정연구단 정책개발1팀장 박상성 △감사관실 읍무조민팀장 김무중 △기획예산과 정책기획팀장 박성도 △문화콘텐츠과 문화산업팀장 송영길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장 정승모 △민원여권과 여권팀장 문종환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육성팀장 김효경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장 이태훈 △원미보건소 보건행정팀장 문영채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팀장 김영섭 △소사구 김영옥 △원미구 원리미, 이종진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 파견(2월14일~12월14일까지) 이장섭, 함병성, 구무성, 육병호(이상 행정직), 이재현(사설직). <순진> △행정지원국 이우찬 △소사구 송경호 △오정구 김성하 △맑은물정수사업소 이동식 △도시환경국 이치홍 △교통도로국 김혁수.

■2월20일 현재 부천 4개 선거구별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이래 사진 게재 순서는 가나다순)



△새누리당 유지훈



△새누리당 임해규



△새누리당 최철



△민주통합당 김경협



△민주통합당 김기석



△민주통합당 박성휘



△민주통합당 이상훈



△민주통합당 조용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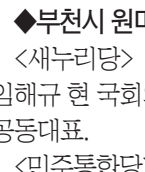
△통합진보당 백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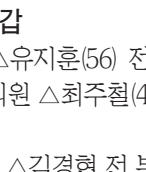
△무소속 정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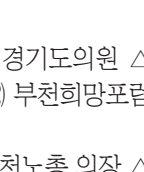
△무소속 조해자



△민주통합당 김경협



△민주통합당 이상훈



△민주통합당 이상훈

◆부천시 원미갑

<새누리당> △유지훈(56) 전 경기도의원 △임해규 현 국회의원 △최주철(42) 부천희망포럼 공동대표.

<민주통합당> △김경협 전 부천노동 의장 △김기석(66) 전 국회의원 △박성휘(58) 중소기업청 등록 경영지도사 △이상훈(47) 전 경기도의

원 △조용익(46) 법무법인 정동 대표 변호사.

<통합진보당> △백현중(41) (사)나눔과 섬김 이사장.

<무소속> △정수천(54) 전 경기개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조해자(46) 전 월드라이프 환경상무.



△새누리당 이사철



△새누리당 최환식



△민주통합당 김진국



△민주통합당 설훈



△민주통합당 송백석



△민주통합당 한병환



△통합진보당 우인회

◆부천시 원미을

<새누리당> △이사철(60) 현 국회의원 △최환식(54) 전 경기도의원.

<민주통합당> △김진국(53) 혁신과통합 부천 공동대표 △설훈(59) 전 국회의원 △송백석(47) 전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한병환(47) 전 부천시 시민운동부장.

<통합진보당> △우인회(61) 전 한국폴리텍대학 김천캠퍼스 학장.



△새누리당 차명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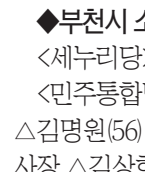
△민주통합당 강백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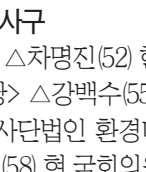
△민주통합당 김명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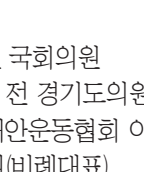
△민주통합당 김상희



△무소속 한상문



△무소속 한상문



△무소속 한상문

◆부천시 소사구

<새누리당> △차명진(52) 현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강백수(55) 전 경기도의원

△김명현(56) 사단법인 환경대안운동협회 이사장 △김상희(58) 현 국회의원(비례대표).

<무소속> △한상문(52).



△통합진보당 이혜원



△무소속 한상문



△새누리당 안병도



△새누리당 오정섭



△새누리당 홍건표



△민주통합당 원혜영



△국민행복당 나삼운



△무소속 서영석

종이신문 더부천
한국 ABC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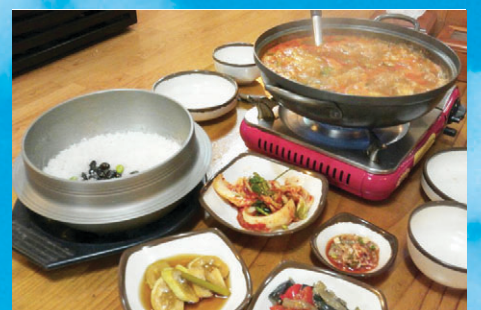
부수공사기구
한국ABC가입

도시에서 느끼는 시골집 정취

안골 텔레기

텔레기란...?

‘텔레기’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향토음식으로 지정했는데, 알고보면 경기도 북쪽 사람들이 즐겨먹던 것입니다. 충청도식으로 말하면 ‘아죽’과 비슷합니다. ‘텔레기’는 이것저것 온갖 음식재료를 넣고 고추장 풀고 수제비와 국수를 넣어 먹는 한마디로 말하면 서민을 먹여리입니다. 낫개로 찢려하러 가서 물고기 잡아 까마술에 넣고 끓여 먹던 ‘천렵탕’과 비슷하며, ‘안골 텔레기’에서는 민물고기 대신 마루리지를 넣었습니다.



메추어텔레기 / 낙지닭도리탕 / 해물파전
해물부추전 / 도토리묵 / 한방막걸리



<안골 텔레기 - 찾아오시는 길>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

①(전철역 부천역에서 북부역 방향으로 나을 경우) 시내버스 타는 곳에서 원종동 방향 8번, 75번, 606번 타고 여월정수장 정거장에서 하차, 길 건너편 산마루들네, 동불사 표지판을 보고 따라 오시면 됩니다. ②(전철역 소사역과 역곡역에서 오실 경우) 시내버스 016-2번, 95번, 95-1번을 타고 여월정수장 정거장에서 하차, 길 건너편 산마루들네, 동불사 표지판을 보고 따라 오시면 됩니다. ③(부천시 원종동, 고강동, 내동 등에서 오실 경우) 부천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여월리(또는 여월정수장) 정거장에서 하차, 여월정수장 앞 일방통행 길로 들어서서 산마루들네, 동불사 표지판을 보고 따라 오시면 됩니다.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121-2번지 예약문의 ☎ 032-674-4585